대형 백과사전의 한계 뛰어넘는 단행본식 백과사전들

휴대의 편리함, 높은 가독성, 풍부한 내용으로 승부해

시중에 나온 단행본식 백과사전들은 휴대가 편리하다. 언제 어디서나 꺼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읽기에도 편하고 재미있다. 이야기로 구성하거나 형식을 다채롭게 변화시켜 지루하지 않게 했다. 무엇보다 피상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지양하고 하나라도 제대로 몸에 체화시키는 읽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신선하다.

백과사전은 근대적 학문의 상징이다. 철학부터 미생물학까지 인간의 손을 거쳐 의미를 획득한 삼라만상이 일사불란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위엄이고 신비였다. 그런데 학문의 발달과 함께 백과사전은 점점 비대해졌다. 분과학문의 벽이 허물어지고 지적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습득하고 확인해야 할 정보의 양도 급증했다. 여기서 '실용성'의 문제가 대두했다. 부피가 크고 무거운 책을 들고다니며 필요할 때마다 꺼내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객관적' 틀 벗고 새로운 재미 추구해

백과사전의 이용빈도가 높아지면서 실용성 외에 크고 작은 불만들이 생겨났다. '가독성'과 '풍부함'에 대한 욕구가 불거진 것이다. 백과사전의 딱딱하고 논리적인 문장의 반복은 쉽게 싫증을 일으키고, 길어봐야 한 페이지를 넘지 못하는 내용설명은 한 개념이 세월의 더께를 입으며 변화해온 역사를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대형 백과사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형식적, 내용적 실험을 모색한 책들이 다양한 출판물로 가시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해ABC북〉 시리즈(창해)다. 이 시리즈는 '주머니 속의 백과사전'을 표방한다. '반 고흐' '고양이' '초콜릿' 등 백과사전의 한 항목을 떼어내 한권의 책으로 구성함으로써, 해당 주제에 관한 폭넓은 교양적 지식을 전해준다. 특이한 점은 내용설명 과정에서 일반독자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단어나 개념어에 *를 표시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가나다순으로 배열했다는 것. 이는 인터넷 검색의 장점인 하이퍼링크를 종이책에 구현한 것이다.

요즘같은 초스피드 시대에 재미없는 글을 진득하게 붙들고 읽어줄 독자는 거의 없다. 열린책들이 펴내고 있는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백과사전〉 시리즈는 독자들의 이런 취향을 바꿔놓을 만한 기획물이다. '지식' '저승' '외계인' '마법' 등 특이하고 이색적인 주제를 심화시킨 이 시리즈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흥미진진하게 들려준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한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동시에 조명함으로써, 하나의 사실을 반복적으로 암기하고 신봉하는 학습태도를 경계했다는 점이다. 독자들은 각자의 관심에 맞춰 이야기를 선택하는 발췌독서를 통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사고의 폭도 넓힐 수 있다.

상상력과 자발성 키워주는 어린이 백과사전

이런 백과사전의 새로운 실험은 어린이책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라루스 백과사전》의 어린이판 《어린이를 위한 라루스 백과사전(전5권)》(주니어김영사)은 빽빽한 글자를 해체해 아이들이 보기 쉽도록 여러 가지 그림과 사진을 실어 재구성했다. 일반적인 설명 외에도 문답식 설명을 달아 지루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각 장의 끝에는 퀴즈를 실어 아이들 스스로 생각해보는 코너도 마련했다. 나열식의 기술방법을 벗어난 짜임새 있는 구성은 백과사전이 내용의 '백과'만이 아닌, '형식'의 백과라는 의미로 진화했음을 일러준다.

《시루스 박사(전12권)》는 비룡소의 야심작이다. '말하는 백과사전'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이 시리즈는 지루하고 딱딱한 분류식 백과사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360개의 질문과 소설기법을 접합시켜 재미있게 구성했다. 내용은 지구, 동물, 식물, 생명 같은 과학 상식들 가운데 어린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추려뽑았다.

이 사전의 한 대목을 들여다보자. 늑대와 코요테가 고기를 씹지 않고 삼키는 이유는 뭘까? 이는 육식동물의 먹이경쟁 때문이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급하게 삼키게 되고 소화기관도 이런 식사법에 맞춰 진화한다. 이런 식의 설명으로 궁금증이 꼬리를 물게 하고 지식을 연쇄적으로 습득하게 해 기억하는 데 훨씬 유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비슷한 형식의 시리즈가 시중에 많이 나와 백과사전을 대신하고 있다. 시공사의 〈시공디스커버리〉 총서는 단행본식 백과사전으로 출간된 것들 가운데 가장 오래됐고 그 종수도 많다. 이같은 시리즈 말고도 《지오팩츠》(미국지리학회, 네오북)는 '단발성' 기획의 좋은 예다. 이 책은 과학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발견한 지구 곳곳의 신비한 지리세계를 정보와 통계치로 전환시켜 체계화한 백과사전이다. 단순한 지식전달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 지리를 입체적으로 분해한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호기심 많은 학생들에게 풍부한 자연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이채롭다. – 강성민 기자